

ARS 060-709-1004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원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TEL:336-6364 FAX:336-6459 annemargie@naver.com 담당:장미애 대리

=====

원고청탁서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에서 박영숙 이사장님께 2007년 4월호에 게재할 옥고를 청탁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래와 같이 집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소식지에 이번 호를 기점으로 권두언에 이사장님의 글이 꾸준히 실리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소식지가 5월호까지만 월간으로 진행되고, 그 후로는 계간지로 바뀌게 될 계획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권두언을 꾸준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저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용 도 : 소식지 4월호 권두언
2. 제 목 : '딸들에게 전하는 이달의 메시지: 기부문화, 혹은 여성계 사업에 관하여'(가제)
3. 내 용 : 이사장님께서 여성재단의 회원들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로 "기부문화의 젠더화" 혹은, "여성계 사업에 대한 소견" 등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원 고 량 : A4 용지 기준 1매(HWP, 글자크기 10포인트, 원고지 10장 내외)
5. 원고마감 : 2006년 04월 2일(월요일)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간이 너무 촉박한 듯 하여 조금 더 기간을 늘렸습니다.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연 락 처 : 기획홍보팀 장미애 대리
7. 송부방법 : 이메일(annemargie@naver.com) 혹은 fax. 02-336-6459